

책을 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와 독자의 활발한 접촉의 장 마련해...

대중성과 진정성 균형있게 담아내는 것이 관건

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은 대중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담아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특히 TV에서는 비시각적인 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고민도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이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다면 독자와 저자의 적극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독자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KBS 제1TV에서 <TV, 책을 말하다>가 새롭게 편성된 이후 책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책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저자와 독자 사이의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책 관련 프로그램이 독서에 대한 대리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방송에 책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KBS 제2라디오의 <라디오 독서실>은 이미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KBS 제1라디오 <이주향의 책마을산책>도 1995년 주말방송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라디오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책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전부터다.

라디오 프로그램 섹션 코너 다양

SBS 표준 FM <책하고 놀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책 관련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 선편을 잡은 프로그램이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고정코너 '그 책이 알고 싶다'와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별의 시를 찾아서' '최재봉의 문학 아이콘' 등 매일 서로 다른 섹션을 마련해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1분PR' '소설

속의 명묘사' '시낭송대회' 등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많은 편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지난 4월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나 시인이 한달씩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는데, 4월에는 시인 장석남씨가 마이크를 잡았고 5월에는 소설가 김영하씨, 6월에는 소설가 은희경씨가 진행을 맡고 있다.

박성원 PD는 "책은 지식인들만 보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며 "다양한 섹션들도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어떻게 하면 책하고 청취자들이 잘 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이주향의 책마을 산책>은 1995년 일요일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매일방송으로 편성된 것은 작년 11월부터다. 저녁 8시 10분의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수원대 철학과 이주향 교수다.

'저자와의 만남' '내가 원하는 한권의 책'을 고정 코너로 두고, '최재봉 기자의 작가수첩' '다시 읽는 고전' '시가 있는 금요일' 등 매일 다른 섹션의 코너를 내보낸다.

<책마을 산책> 제작진이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는 수요일 방송되는 '수요집중탐구 이 책을 말한다'다. 책의 주제에 적합한 패널을 초대해 작가와 토론하고 청취자들의 활발한 의견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번역가 남경태씨, 월간

<베스트셀러> 이홍섭 주간, 가정독서지도사 김은자씨가 나와 각 분야 책들을 리뷰한다. 또 만화평론가 김철진씨가 '만화토피아' 코너를 통해 만화 뉴스를 들려주고 추천만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김영한 PD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관심 있게 들어주는 청취자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또 "디지털화하는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가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도 책이라는 아날로그 매체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의 의의를 설명한다.

책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KBS 제2라디오의 <라디오 독서실>은 일요일 아침 6시 5분에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오북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주로 신간소설 위주로 책을 선정해 30분짜리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청취자들에게 '책을 들려주는' 형식이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기재 PD는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책 한권을 압축해서 재미와 감동을 전달하면서 책 한권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독서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일요일 오후 9시부터 55분간 전파를 타는 TBS의 <라디오 책방>은 신간소개와 '화제의 책'의 '저자 인터뷰', '신간작가 인터뷰'로 꾸며진다. 출판평론가 김영수씨가 고정패널로 출연해 아나운서와 공동 진행한다.

작가들 엄숙주의 · 신비주의 버려야

TV 쪽에서는 EBS의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이 현재 방송되는 책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토요일밤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방송한다. 200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책'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을 주로 소개하고 고전과 신간, 베스트셀러 가운데 사회를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인 정운영씨와 저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면 그리 대중적이진 않다.

류현위 PD는 “시류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EBS의 성격에 맞게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좋은 책과 좋은 저자를 소개해 독자들에게 책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KBS 제1TV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방송되는 <TV, 책을 말한다>는 최근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6회 방송을 내보낸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돼 있다.

<TV, 책을 말한다>는 그동안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김석희, 한길사)를 시작으로 은희경의 <마이너 리그>(창작과비평사), 조창인의 <가시고기>(밝은세상) 등을 다루면서 각 책의 성격에 따라 진행방식을 다양하게 변주했다. 진행자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명진 교수가, 프로그램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 개그맨 이윤석씨가 보조진행자를 맡고 있다.

오진산 차장은 이 프로그램이 이미 책과 친숙한 고급 독자층보다는 책과 멀어진 30~50대 시청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오차장은 “출판기획자의 심정으로 책을 고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들이 폭넓게 두터워지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들도 신비주의와 엄숙주의를 벗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MBC는 책 프로그램 편성에 인색한 편이다. 라디오에서도 본격적으로 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지 않고 TV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요일 밤 12시에 방송되는 <문화매거진 21>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책마을 이슈’가 거의 유일한 책 프로그램이다. 그 동안 6회가 방송된 ‘책마을 이슈’에서는 최인호, 유홍준 등 문화와 문화계에서 비중 있는 작가의 작품을 주로 다뤘다. 작가가 자신의 책에 대해 설명하고 평론가가 평가하는 다소 도식적인 형식으로 꾸며지는데, 이 프로그램의 외주 업체인 서울제작단의 이영현 PD는 “5~8분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형식과 시각적인 요소를 담



방송의 책 프로그램은 정적인 문자매체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전환해 시청자나 청취자와의 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사진은 <TV, 책을 말한다> 홈페이지.

아내기란 무리”라고 제작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경인방송은 몇 년 전에 <책방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없앴 이후로 다른 책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말뉴스시간에 7~8권의 신간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다.

현재 지방방송국에서 제작되는 책과 관련한 독립된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라디오의 음악프로그램이나 정보프로그램에서 책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KBS 대구방송의 <문화살롱>, 부산방송의 <뉴스와 생활경제>, 대구 평화방송의 <FM 좋은 아침> 등 책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띈다.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문화살롱>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 있는 책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뉴스와 생활경제>는 부산 영광도서의 협조를 받아 매일 ‘오늘의 책’을 내보낸다. <FM 좋은 아침>에는 매주 한번씩 마련된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 시인 박영희씨가 출연해 시, 소설, 산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췌해 읽어주고, 이슈가 되는 책들을 소개한다.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KBS 제1TV <좋은 나라 운동본부>의 ‘지하철 책을 읽습니다’ 등 10여 개의 방송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출판평론가 김영수씨는 ‘책을 말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독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출판이나 문화계의 엄숙주의를

깨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SBS <책하고 놀자>를 진행해왔고 각종 책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바 있는 시인 김갑수씨는 “아직까지 책 프로그램의 올바른 전경은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책을 다루는데 원칙이 없다는 것이 우리 책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제작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취자나 시청자들의 지적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무작위적인 시청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다보니 “신랄한 토론도 힘들고, 오락으로 가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대중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고르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책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역할과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책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저자들이 독자와 접촉하는 기회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책 프로그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김씨는 강조한다. - 김정근 기자